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경제 정책들의 상충

복 거 일
소설가·사회평론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큰 고통을 겪게 마련이다. 일자리가 불안한데 저축도 적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유난히 추운 겨울에 가난한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는 모습은 둔중한 아픔을 남긴다. 이어 그런 고통이 경제의 침체 때문이 아니라 현 정권의 어리석은 고집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생각이 분노의 불길을 댕긴다.

현 정권은 일자리 늘리기를 으뜸으로 꼽았다. 상황판까지 만들었다. 그러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자, 슬그머니 '적폐 청산'을 앞자리에 내세웠다. 이제 일자리들이 크게 줄어들고 청년 실업이 가파르게 늘어나자, 다시 일자리를 챙긴다. 문제는 현 정권의 정책들 가운데 여럿이 일자리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이다.

현 정권은 공무원을 갑자기 늘렸다. 그러나 늘어난 공무원들이 생산하는 가치는 크지 않다. 그들의 봉급은 세금에서 나오는데, 세금을 걷어서 쓰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따른다. 이윤이 줄어든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고 있으니, 궁극적으로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가 함께 줄어든다.

비정규직들을 강제로 정규직으로 만드는 정책도 일자리를 줄인다. 비정규직들을 쓰는 기업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막으니, 시장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셈이다.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든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특히 나쁜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른 임금을 줄 수 없는 일자리들이 사라진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일자리를 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특히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이득을 보도록 한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부도덕한 제도다. 불행하게도, 강력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현 정권은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졌다.

경쟁력이 있고 유망한 원자력 발전 산업을 단숨에 황폐하게 만든 '탈원전' 정책도 두고두고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들의 폐쇄로 인한 전기의 부족과 가격 상승은 기업의 비용을 올리고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앞으로 더욱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세율을 크게 올린 것도 문제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세금을 거두어 쓰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서, 세금이 늘어나면, 사회의 효율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줄어든다. 특히 법인세의 인상은 전략적으로도 어리석으니,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해외로 나간다. 미국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낮추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추세에 역행한다.

가장 근본적 문제는 노동조합 쪽으로 너무 기운 현 정권의 노동 정책이다.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는 시장의 정상적 움직임을 방해한다. 그래서 모든 경제학자들이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경제 개혁의 핵심으로 꼽는다. 우리 사회에선 노동법이 비정상적으로 노동조합에 유리할뿐더러 그런 법마저 노동조합의 '직접 행동'에 흔히 무너진다. 이처럼 편향되고 경직된 노동 시장은 고용을 크게 줄인다. 게다가 줄어드는 일자리들은 주로 대기업들의 하청 업체들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다. 이처럼 일자리가 갑자기 줄어든 것은 현 정권의 정책들이 고용에 해롭기 때문이다. 그런 정책들의 상충을 해결하지 않고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물론 그것은 풀기가 무척 어려운 문제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에서 좌파 정당들은 모두 노동조합의 정치부서(political arm)였다. 특히 현 정권은 노동조합의 적극적 지원으로 집권했다.

따라서 현 정권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정책들을 추진해야만 하고 반대하는 정책들은 실행할 수 없다. 최저임금제가 부른 갖가지 부작용들을 확인하고도 그것을 수정하지 못하는 데서 그 점이 잘 드러난다. 노동 시장의 개혁은 물론 꿈도 꾸지 못한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현 정권은 어리석은 정책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리고 검증된 처방들을 따라 일자리를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권력 기관들과 언론 매체들을 장악해서 시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려는 전략만으로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크게 부족하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칼럼

북한에서 내려온 형제자매에게 보내는 편지

장 헌 권
서정교회 담임목사

역사적인 평창 동계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그리고 예술단 모두 우리 형제자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환영하며 반갑다는 인사 올립니다.

저를 잠깐 소개할께요. 나이 61세이며 목회 활동과 함께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15 남측위원회 광주지부 공동대표이지요. 특히 제가 목회 활동 하는 광산구 동네에서는 20년 전부터 '광산구 통일한마당'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통일 운동이 무슨 거창한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지요.

어제는 저의 사회 활동과 인권 활동의 근거가 되는 광주기독교회협의회(NCC)에서 장기수 선생님을 비롯한 통일 원로 선생님들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지요. 장기수라는 이름이 생소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분단으로 말미암아 수십 년을 옥중 생활하신 분들입니다.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 가운데 북측에 두고 온 가족들이 많지요. 서옥렬 선생님은 이제 100세 가까운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치지 못한 편지를 지금도 가슴에 품고 있지요. 그분은 북측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송환 운동을 하고 있지요. 거대한 운동보다는 소소한 가운데 통일에 젖어들도록 하는 운동이지요.

이런 짧은 시가 있어요. 제목이 '통일은 참 쉽다'입니다.

"통일은 참 쉽다/ 남쪽 북쪽 철조망/ 둘둘 말아 올리면 되지// 통일은 참 쉽다/ 남쪽 북쪽 우리 겨레/ 왔다 갔다 하면 되지// 통일은 참 쉽다/ 이렇게 쉬운 통일 어른들은 / 왜 안하나 왜 못하나"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세월동안 통일은 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제자매들도 잘 알다시피 강대국들 영향이지요. 또한 남한에 그동안 군사 정권이나 독재 정권을 통해서 오히려 분단을 이용해 안보라는 구실로 정권 안보를 유지해온 것이지요. 이제 땅과 하늘 바다 길을 통해 뜨거운 통일의 열망이 시작되었어요. 그토록 길었던 빙하기가 끝나길 간절한 마음이 하나가 돼 온 겨레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광주는 80년 5월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도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광주 정신은 바로 5월 정신 통일입니다. 그래서 슬로건이 '5월에서 통일로! 평창 넘어 광주로!'입니다.

광주의 시인이면서 민족 시인 김준태 시인이 있지요. 통일 시화전 '백두산아 훨훨 날아라'도 했습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쌍둥이 할아버지의 노래'가 있어요.

"한 놈을 업어주니 또 한 놈이/ 자기도 업어주라고 운다/ 그래, 에라 모르겠다!/ 두 놈을 같이 업어주니/ 두 놈이 같이 기분 좋아라 웃는다/ 남과 북도 그랬으면 좋겠다."

멋진 시이지요. 김준태 시인은 저하고 가끔씩 안부를 묻는 시인이지요. "통일만이 답이다" 늘 평화 통일을 노래하는 원로 시인이지요. 내일 망월동에서는 김남주 시인 24주기 추모 행사가 있어요. 역시 민족 시인으로 옥중 생활로 세상을 일찍 떠났지요. 그의 시 '조국은 하나다'가 떠오릅니다. 문익환 목사님도 '꿈을 비는 마음'이나 '잠꼬대 아닌 잠꼬대'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 서로 포옹하는 장면을 기억했지요.

이제 편지를 갈무리 할 때가 되었어요. 서로 미워하지 말고 단일기를 손과 손에 들고 평화 통일 위해 자주 만남을 약속해요. 올림픽 이후에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전쟁 훈련하지 말고요. 평창은 강원도의 작은 도시가 아니라 세계인의 가슴에 평화 염원을 담은 승리의 땅이 되었지요. 제가 쓴 시 가운데 '통일을 위한 기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마칩니다.

"베갯머리 적시며/ 지칠 대로 지치고/ 보타질 대로 보타지는 가슴/ 찢겨진 상처 투성이/ 치유하게 하소서// 남과 북은/ 휘청거리며 서성대고/ 삼팔선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사이/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한몸 한맘 되어/ 평화 넘실거리는/한 겨레 되게 하소서"

북한에서 내려온 형제자매들에게 선물하는 시입니다. 남한에 있는 동안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을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지요. 우리 모두 세계 평화 인사해요. 샬롬.

기 고

평화와 우정의 제전, 평창 동계올림픽

문 종 민
광주북성중학교 교장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

이는 세계 평화나 선수의 안전 및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설과 관중 수준과도 관련이 있으며, 올림픽을 통해 세계인들이 각국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올림픽이 선수들 기량을 다투는 행위뿐만 아니라 문화가 창출되고 우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수준이 여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동·하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하게 되는 나라가 된다. 이런 나라는 8개국 정도이고 역대 12개국만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부단한 자부심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포츠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분단을 넘어 평화와 우정을 나누게 되는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은 오는 9일 개막식과 함께 25일까지 17일간 강원도 평창과 강릉 등지에서 열린다. 동계올림픽은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처음 열린 이래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대회부터 동·하계가 따로 열리고 있다.

더구나 이번 올림픽에서 목표한 대로 4위에 입상한다면 동·하계올림픽, 월드컵에서 4위 안에 입상하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되니 경기력 또한 세계적 수준임이 증명되는 셈이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걱정도 상당하다. 기우이겠지만 국민적 관심이 아직은 저조한 편이다. 스포츠 수준은 국민 수준과 비례한다. 우리만의 촛불 문화와 같은 결집된 스포츠 문화의 수준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올림픽이 비록 도시 단위에서 개최되지만 결코 평창만의 대회가 아니다. '88 서울올림픽'과 '2002 한일월드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특별한 관심이 쏠리는 대회이다.

첫째는 북한의 대회 참가다. 최근 북핵 문제로 인해 국제 정세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참가는 최대의 관심사였다. 몇 년 사이 남북 대화의 단절로 인해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기회는 뒷걸음질 쳤다.

남북이 얼어붙어 강대국들의 이해가 충돌하고 동북아 정세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북한 선수단 참가는 선수들의 불안을 일거에 잠재웠다. 또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은 그 모든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했다.

두 번째는 도핑(금지 약물 복용) 문제이다. 러시아의 조직적 도핑이 북한의 올림픽 참여 문제로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도핑은 스포츠 윤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도핑은 정당한 훈련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지 않고 약물을 통해 근육의 부피를 늘리고 체중을 조절한다.

특히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단축시킬 위험이 크다. 손쉬운 방법으로 인해 많은 선수들이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를 막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선 거의 모든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핑 테스트를 실시한다.

세 번째는 여자 아이스하키의 단일팀 문제다. 스포츠의 상업화와 정치화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모든 선수나 팀은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다른 팀보다 엔트리를 늘린다거나 특별한 선수를 위해서 정당하게 훈련한 선수들이 배제돼선 안 된다. 스포츠에서 '예외'란, 규칙을 무시하는 반칙 행위다.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입장하고 단일팀을 구성해 하나됨을 세계에 과시하는 것은 역사적 가치가 있다.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를 온 세계에 표방하는 계제다.

88 서울올림픽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렸고, 2002 한일월드컵이 대한민국의 문화적 수준을 알렸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은 스포츠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촉매제라는 것을 알리게 될 것이다. 체육인으로서 광주에서도 동계 스포츠 스타가 탄생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社 說

막 오른 평창올림픽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성공 개최의 닻을 올렸다. 이번 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이자 한국 문화 및 최첨단 ICT가 선보이는 올림픽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평화 올림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행동하는 평화'(Peace in motion)라는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을 추구하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남북 단일팀이 구성된 데 이어 9일부터는 2박3일 일정으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을 포함한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이 남한을 찾는다. 김정은의 복심으로 여겨지는 김여정의 남한 방문이 주목받는 이유는 북핵 문제로 빚어진 남북한 대립 국면을 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김여정에 하루 앞서 방한하면서 북미가 평창에서 사실상 최고위급 외교전에 나서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을 북미 중재 외교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이다. 대결 국면으로 치닫던 북미 관계가 평창 올림픽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향후 한반도 정세를 장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노련한 중재 외교를 통해 평창 올림픽을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펜스 부통령 측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주문하고 북측에는 김여정을 매개로 김정은과 간접 대화를 통해 대화의 장으로 유도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도 이번 올림픽을 통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선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전 세계 사람들이 평창 올림픽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스포츠 종목의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간, 북미간 긴장이 완화된다면 자연스럽게 평창 올림픽은 지구촌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환경오염 '나 몰라라' 지자체가 이래도 되나

광주 지역 5개 구청들이 가로수와 공원 등의 방제 작업에 유해성이 강한 농약을 살포하고 있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들이 사용한 농약은 인체는 물론 물에 사는 생물이나 꿀벌 등에 해로운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 사용이 금지됐거나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일보의 취재 결과, 5개 구청은 지난해 광주 지역 가로수·공원을 비롯한 녹지 공간에 어드마이어 등 병해충 방제 약제 14종을 뿌리거나 주사했다. 동구는 시설녹지 8곳과 동적골 가로수 및 도로 화단 등에, 서구는 상무시민공원 등 공원 30곳과 상무중앙로 등 5개 노선 7㎞ 구간의 가로수에 농약을 뿌렸다. 남구는 푸른길공원·유안근린공원·불로어린이공원 등 주요 공원과 대남대로와 독립로 등 대로변 가로수에 농약을 썼다. 북구도 공원 13곳과 가로수에, 광산구는 선운공원·쌍암공원 등 공원 10곳과 7개 구간 가로수에 농약을 쳤다.

녹지공간 관리를 위한 유해성 강한 농약 살포는 과거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국 대다수 지자체들이 2015년 이후 거의 중단했다. 한발 나아가 서울 종로구는 매년 1000t의 낙엽을 친환경 퇴비의 재료로 활용해 1억 원에 가까운 낙엽 처리 비용까지 절감하고 있다.

언제까지 인력과 예산만 탓하며, 맹독성 농약을 사용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유해성 강한 농약을 장기간 사용하면 광주천의 수달 등 야생 동·식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여왕벌의 증식을 억제해 끝판에는 꿀벌이 사라진다며 생태계 교란을 우려하고 있다. 일반 농약보다 인체에 해가 적은 친환경 유기농약은 지난해 동구청만이 유일하게 푸른길공원 등 10개 공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구청은 가로수와 공원 등 모든 녹지에 사용하는 농약을 즉각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공정한 경쟁

빌리 진 킹. 단식·복식·혼합복식을 합쳐 무려 39개의 그랜드슬램대회에서 우승한 여자 테니스의 전설이다. 그녀는 남자 선수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상금을 받자 대회 출전을 보이콧 하고 세계여자테니스협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인종·성별·종교 차별 논란이 뜨거웠던 1973년. 빌리는 "여자가 코트에 없으면 공은 누가 줍나?"라는 막말을 일삼던 전 윔블던 남자 테니스 우승자 바비 릭스와 남녀 성대결 이벤트를 벌인다.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 열광한 세기의 대결.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 이후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이 경기의 결과는 많은 사람의 예상과 달리 빌리의 3대0(6-4, 6-3, 6-3) 완승으로 끝났다. 빌리는 경기 후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난 그저 공정한 대우를 원해요"라고 짧게 말했다.

호주오픈 테니스에서 4강 신화를 이룬 정현도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을 받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에 테니스 선수로서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름이라는 의미의 공정. 공정한 경쟁은 스포츠 경기를 역동적이게 하고 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관의 80%에서 부정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 실력이 아닌 빽과 연줄을 통한 반칙과 불법 행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 준다.

올림픽 선수 선발에도 공정성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최근 노선영 선수 사태와 심석희 선수 폭행 사건도 내 사람 선발하기, 내 선수 성적 올리기에 집착한 빙상연맹의 뿌리 깊은 파벌주의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오죽하면 소치올림픽에서 우리 국민이 한국 선수가 아닌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를 응원했겠는가. 심판 판정에도 논란이 많았다. 지난 대회에서 김연아는 완벽한 경기를 하고도 그렇지 못한 러시아 선수에 금메달을 넘겨야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 개막한다. 남북이 화합하고 세계인의 축제가 되는 평화 올림픽과 함께 판정 시비가 없는 공정한 대회로 역사에 기록되었으면 한다. /유제관 편집1부장·부국장 jkyou@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